

포천署, 사랑의 향기운동 전개

정혜원 방문, 위문품 전달

포천경찰서(서장 최원일) 경무과, 청문감사실 직원일동은 14일 자매결연을 맺은 소흘읍 이곡리 정신지체장애 시설인 정혜원을 방문해 쌀, 라면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나눔으로 나누는 경찰의 사랑 향기 운동'인 램프(LAMP, Lovely Aroma Movement of Police)운동의 일환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불우시설에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을 전달키 위해 실시했다.

이날 시설을 방문한 직원들은 장애아동의 말발이 되어주는 등 소중한 시간을 보냈으며, 장애아동들이 밝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시설 관계자는 "요즘 경제가 어려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아쉬웠는데, 우리를 바라봐 주는 분들이 생겼다는 것에 큰 힘이 된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포천경찰서는 앞으로도 LAMP(경찰의 사랑향기운동)처럼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주는 봉사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힘쓰기로 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자원봉사대회 등 다양한 행사 마련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단체장 간담회서 결정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단체장 간담회에 참가한 각 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04 포천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단체장 간담회가 15일 포천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천시 새마을지회 이현동 사무국장이 진행한 회의에는 포천시 34개 관련단체 및 봉사단체, 시설을 포함해 40여개 단체가 모였다.

이정열 부시장은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컸다"며 "시에서는 앞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복지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각 단체의 간단한 소개 후 전영숙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장상담실장의 보고와 각 단체의 토의로 진행됐다.

이날 토의된 안건은 4가지로 포천시 자원봉사대회 및 대축제 계획,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계획, 자원봉사 활동 우수사례공모, 자원봉사 활동 사진전 공모이다.

첫째, 안건으로 포천시 자원봉사대회는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고

11월 중순 최종 심사결과가 발표된다. 또 자원봉사대축제 시상식 및 축하공연은 11월 25일 포천시 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둘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은 자원봉사 관계자 및 활동 모임 대표자 등 50여명이 참가해 10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워크샵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발전방향 등을 논의한다.

셋째, 자원봉사 활동 우수사례 공모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를 받아 자원봉사대축제 행사장에서 시상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 사진전은 사회복지 사회공익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11X14" 사이즈로 참가하며,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접수 받기로 논의됐다. 전시회는 10월 중 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서 주민자치과 윤철현 계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수행키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단체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건의된 사항은 정리 후 포천시청에 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우리 동네를 말한다 ⑤ - 야미2리 이장 이길연

맑은 물, 맑은 인심

"35년전만 해도 쇠가 많이 나서 풍요롭던 마을이었지요" 야미2리 이길연(48.사진) 이장은 철광산 시절의 화려했던 야미2리를 회상해 본다.

영북면에 위치한 야미리는 옛날 소나무 숲이 울창해서 밤이면 도둑이 자주 출몰했다고 전해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야미리는 현재 3개반이 합쳐져 구성된 지명이다. 1반은 횡가마을, 2반은 서두물, 3반은 쇠골마을이다.

횡가마을은 과거에 약간의 철이 나던 곳이라 해서 지어진 지명이고, 서두물은 1978년 취락구조사업으로 쇠골에서 분산돼 생긴 마을이다. 또 쇠골마을은 30여년 전까지 철광산이 있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이 이장은 "현재 98가구 379명이 거주하는 야미2리는 주로 논, 밭농사를 짓는다"며 "현재 65세 이상 노인구성이 전체의 1/3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노동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몇몇 가구에서 양계와 축산을 하고 있지만 미미하다"며 마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 요즘 야미2리는 여기저기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이장도 노심초사하고 있

다. (주)한화에서 화약을 야미2리에 짓겠다고 주민 설득 작업에 들어간 때문이다. 포천시와 관계기관에서 한화 측에 주민동의를 받아야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장은 "화약고 설치하는 노인회, 부녀회, 영북면 이장협의회, 주민들 모두가 반대하는 일이다"며 "한화 측에서 강행할 경우 주민들과 합심해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시에서 7월중 주민설명회를 갖고 10월중 시행기로 한 마을 도로포장 및 개설 사업이 아직 기초공사도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한다.

야미2리의 명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딱히 명소라고 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쇠골이 시에서 가장 맑은 물이 나오는 곳이지요"라고 말했다. 옛부터 쇠골마을은 물이 맑은 곳으로 소문이 난 곳이라 한다.

한편 이 마을에는 관내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멋진 마을 회관이 마을입구에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11월 완공한 마을회관은 총 60평 규모에 1층에



화약고문제 등 마을의 당면현안에 대해 강한 대처를 다짐하는 이길연 이장

는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가 있고, 2층에는 탄남머신 등 8종류의 체육시설과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열악계, 아이들의 정보화 함양을 위한 컴퓨터 등이 설치됐다.

이 이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포장이 이루어지고 화약고 건설이 무산되길 희망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지혜배기자 94spice@hanmail.net

65세 이상 노인 무료검진 실시

관인면, 인근 부대의 도움을 받아



관인면이 육군 제3007 부대의 협조를 받아 노인들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들을 위해 한방과, 내과, 가정의학적 건강, 치료, 치과 등 무료건강검진을 운영해 65세이상 노인들이 80명이 참가했다.

그동안 관인면은 2층 회의실에서 실버댄스 교실 운영, 민요교실 운영 등 다각적 방법으로 노인들에게 노인 여가 활동을 제공하여 자부심을 갖고 성숙한 노년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익명의 독자가 관인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해 듣고 어렵고 소외된 노인

들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풍기 30대를 무료로 기증하기도 했다.

노인들을 무료건강검진은 지난 8월20일부터 매월 셋째주 금요일마다 실시하고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대형화재예방 안전문화교육으로

포천소방서는 지난 10일

2층 소회의실에서 소방시설공사업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시설공사 시 완벽한 시공은 물론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건전하게 육성 지도하고 소방관련업체의 안전문화를 통한 대형화재예방에 기여코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7일 MBC 뉴스데스크 현장출동에서 반영된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부실시공 관련 및 일부 소방업체가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고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총약을 강요하는 사례와 2004년도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 등 부당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지난 5월30일부터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시설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소방시설 공사법 제정내용 중 주요골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포천소방서는 소방관련업체의 안전점검을 통한 화재예방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이대열 포천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방시설관련업체의 운영건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지역 관광 4 코스로 즐겨라’

포천 코스 맵 (Course Map) 눈길

최근 포천지역 관광을 4가지 테마로 소개하는 지도인 '포천 코스 맵 (Course Map)'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도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Yellow Course ▶연인과의 사랑을 키워주는 Pink Course ▶봄이 행복해지는 Green Course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Blue Course 등, 네 가지 주제의 코스를 친절히 안내하고 있어 가볼 곳은 많지만 막상 어느 곳부터 가야할지 망설여지는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포천 코스 맵'은 특히 수도권 주민들이 하루동안 효과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관광코스를 추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떠나는 Yellow Course는 9시 출발 → 11시 명성산과 산정호수 → 2시 허브아일랜드 → 4시 일동 온천지구에서 따뜻한 온천 → 6시 이동갈

비촌에서 푸짐한 갈비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연인과의 사랑을 키워주는 Pink Course는 9시 출발 → 11시 영그린하루스 → 2시 산사원 → 3시 웨스턴밸리 → 6시 고모리 카페마을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또 ▶봄이 행복해지는 Green Course는 정계산과 백운계곡, 약사동계곡, 포천신북온천 환타지움, 풍혈산 순두부 정식을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Blue Course는 드라마 '파리의 연인' 촬영장소인 트라포스 밸리를 비롯해 수립 펜션과 포천국립수목원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숙박시설, 교통편, 특산물 안내와 포천시가 한눈에 들어오는 일체 지도가 수록돼 있어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푸른 도시 포천을 관광객들에게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지역 관광을 4가지 테마로 소개한 '포천 코스 맵'.

최고의 제품과 만나보십시오

ABS 및 각종 수지 컬러링 전문업체 '쥬신동명케미칼'



합성수지 및 종합유동 및 플라스틱 원료전문 생산업체로서 다양한 메이커 제품과 함께 최신식 설비는 물론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컬러링 작업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쥬신동명케미칼. 쥬신동명케미칼은 1993년 서울 마장동에서 신동명프라스틱으로 설립된 이후 직원 30여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온 기업으로 2001년 포천시로 이전하면서 제2의 도약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쥬신동명케미칼은 1천여명의 회사규모에서 최신식 기계설비를 갖추고 다양한 컬러 플라스틱 원료를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쥬신동명케미칼은 [KE]화학, [Hyo]성T&C, [이]또피나 코리아의 특판 및 대리점으로서 주력제품인 ABS, PS, 아크릴 및 기타수지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다양한 COLORED RESIN은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품질의 우수성 확보와 뛰어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쥬신동명케미칼에서 생산되는 ABS 수지는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부타디엔(Butadiene), 스티렌(Styrene)의 화합물질인 고유동·고충격의 고급수지로 전기·전자제품, 고급생활용품, 원구, 음식용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출제품과 압출물에 사용됩니다. PS-폴리스티렌(Polystyrene) 수지는 성형가공이 양호한 수지이며 GPPS는 투명성, 착색성, 무독성, 성형가공성이 우수합니다. HIPS는 내충격성, 열안정성, 내후성 및 도장이나 점착의 2차 가공성이 탁월한 제품으로 모든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쥬신동명케미칼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컬러링 전문업체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타 업체에 비해 신속한 납품과 월등히 싸게 파는 전력이 주요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플라스틱 업체의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이사 양상모